

한국과 호주여성의 모발관리행동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Australian Women's Hair Care Behavior

류은혜 · 박숙현* · 권미정

웰라 코리아 세바스찬 사업부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 국립밀양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Ryu Eun-Hye · Park Sook-Hyun* · Kwon Mi-Jeong

Wella Korea ·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sung University ·

Dept. of Fashion Design, Miry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hair care behaviors between Korean and Australian women whose individual hair characteristics, social backgrounds, and culture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n, this study also aims to provide some basic data for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beauty education and industr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with 208 Australian females and 392 Korean females. Analyses included t-test, frequency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Korean women mostly had black and brown natural hair, and 68.4% of them had color. On the other hand, the Australian surveyees had brown and dark blonde, and 85.4% of them had color. They both were asked why they were using hair products. The Koreans responded that they were for hair moisturization, while the Australians said they were for producing a hair style they wanted. In addition, the Koreans made the most use of a hair conditioner and hair wax, while the Australian women did a hair spray and gloss. As far as the satisfaction with beauty salon service goes, the Australian respondents showed more service satisfaction than the Koreans on average. The homogeneity of the two nations' average points was t-tested. The result indicat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in the hair shop satisfaction with services, such as dyeing, haircut, blow dry, shampooing and massaging, and staff attitudes.

Key Words : Hair care behavior, Hair color, Hair shop service satisfaction

I. 서론

후기 산업사회의 경제적 풍요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은 현대인들에게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생활영역 뿐 아니라 개인의 외적 이미지의 중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외모도 능력의 일부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외적 이미지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식문화는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메이크업 등과 함께 전체적인 조화가 중시되는 토탈 패션화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헤어스타일은 메이크업과 의복과 통합하여 개인의 인상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모발을 가다듬는 것은 신체보호의 기능이 외에 주술적인 면과 심미적인 기능을 지닌 인간의 종합

적 표현수단이다. 현대인들은 모발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치장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필수적인 모발관리를 함으로써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외모관리의 기본단계인 모발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김병미·유미근, 2004)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발손상정도 및 원인, 샴푸제 사용여부, 종류 및 사용횟수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성인여성들을 대상으로한 연구(김용숙·이지영, 2002)에서는 모발관리행동에 대해 세정, 비듬관리, 탈모방지, 염모스타일, 영양공급의 6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외국의 모발관리행동, 비교에 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조건, 문화적 조건이 다른

* Corresponding author: Sookhyun Park
Tel: 051) 620-4663, Fax: 051) 623-5248
E-mail: shpark@star.ks.ac.kr

한국과 호주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모발특성, 염색, 펴, 헤어제품, 헤어 샵 이용, 헤어 샵 서비스 만족도의 6영역의 모발관리행동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헤어문화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동·서양 소비자의 모발특성에 적합한 헤어제품 개발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헤어스타일 선택이 자유롭고 경험이 많은 20대 이상 여성으로 제한하였으며, 지역은 본 연구자가 2년간 헤어관련 연구를 했던 호주 멜버른 지역과 한국의 부산 지역의 거주자로 제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모발관리행동

모발은 피부표피에서 자라나는 피부의 부속기관으로 추위나 마찰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며 장식역할까지 수행한다. 모발에 의해 형성되어진 헤어스타일은 한사람의 외모나 인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모발관리와 헤어스타일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모발관리행동이란 모발의 상태, 형태, 구조, 그리고 화학적, 역학적,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퍼머넌트 웨이브제, 염모제, 정모제, 양모제 등 모발화장품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말한다(하병조, 1999). 헤어스타일적 측면에서 보면 커트(hair cutting), 퍼머넌트(permanent), 모발 염색 및 탈색(hair coloring & bleach), 드라이(blow drying), 세팅(hair setting), 아이론(hair iron), 올림머리(up-style) 등으로 미용실에서 시술되고 있는 작업의 범주가 이에 속한다(곽형심, 1998).

2. 헤어 제품

패션의 변화에 따라 헤어스타일 또한 꾸준히 변화해 왔다. 시대와 유행의 변화에 걸맞은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위해 화장품 화학자들은 스타일링 제품을 소비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 향상시켜 왔다. 다양한 헤어스타일링과 스타일링 테크닉은 여러 기술들의 접목으로 모발 텍스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진다.

화장품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발화장품이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한 분류된 화장품 11가지

품목 중 모발용 제품 류와 염모용 제품 류를 포함한다(김남일, 1986).

3. 헤어 샵 이용 만족도

고객의 입장에서 미용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수단인 고객 만족도는 고객의 기대 요구 및 미용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러한 고객만족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홍보와 교류는 미용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고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것이며 헤어 샵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처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김형욱, 1999, 나영순·최은영·백승화, 2000).

미용서비스란 첫째, 고객이 서비스 생산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생산·소비의 동시성과 비분리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동시성은 미용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개념이고 미용서비스의 비분리성은 서비스 즉 생산의 결과를 저장하거나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하며 품질 관리 시 통제의 한계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용서비스는 소멸성이 강하고 표준화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생산면에서 동일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미 생산된 다양한 질의 서비스를 분류하여 표준화시킬 수도 없다. 또한 미용서비스는 소멸성이 매우 강하며 저장될 수 없고, 서비스의 수요는 매 시간, 매일, 매 계절마다 변동하는 특징을 지닌다(황선아·황선진, 2001).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에 따른 설문항목 및 평가방법은 <표 1>과 같다.

2.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호주 멜버른 지역과 한국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성(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3년 6월~8월(호주), 2003년 11월~2004년 2월(한국)이었다. 설문지는 호주 220부, 한국 400

<표 1> 조사 항목 및 평가 방법

조사내용	항목수	조사항목 및 평가방법
일반적 모발특성	3문항	자연모발색, 자연모발형, 모발의 지성도
염색	6문항	현재염색유무, 염색모 색상, 직접염색 유무, 염색모 유지기간, 염색하는 이유, 염색하지 않는 이유
퍼머넌트 웨이브(펌)	4문항	펌유무, 펴종류, 펴를 하는 이유, 펴 하지 않는 이유
헤어 샵 이용	3문항	헤어 샵 이용유무, 헤어 샵 이용빈도, 가장 많이 받는 시술
헤어제품 사용	4문항	헤어제품 사용빈도, 헤어제품 사용이유, 주로 사용하는 제품, 구입시 중요한 요인
헤어 샵 서비스 만족도	7문항	염색, 헤어컷, 펴, 헤어드라이, 올림머리, 샴푸-두피마사지, 직원태도 만족도 (Likert 5점 척도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인구통계학	2문항	연령, 직업

부 총 62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 불성실한 답변 및 무응답 항목이 많은 20부를 제외시킨 60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10.0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한국과 호주여성의 일반적 모발 특성, 염색, 펴, 헤어샵 이용, 헤어 제품 사용 항목들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호주여성의 헤어 샵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 기법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모발특성 비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모발특성<표 3>에서 자연 모발 색을 보면 한국은 검정이 51.3%로 가장 많았고 갈색이 47.7%, 반백이 8% 순이었다. 이는 최귀자(2001)의 연구결과 (검정 56.2%, 갈색 32.7%)와 양숙희(2001)의 결과 (검정51.4%, 갈색36.9%)와 비슷하였다. 호주는 갈색이 46.2%로 가장 많았고 어두운 금발이 25.0%, 검정 17.3%, 밝은 금발 5.3%의 순이었다.

자연모발형에는 한국은 직모가 44.4%, 굵은곱슬 28.1%, 가는 곱슬 27.6% 순이었고, 호주는 직모가 44.7%, 굵은 곱슬 41.3%, 가는 곱슬 13.9% 순으로 한국과 호주의 직모 비율은 비슷하였고 한국은 굵은 곱슬과 가는 곱

<표 2>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600

인구통계학적 변인		n(%)	합계
연령	한국	20대	235(59.9)
		30대	67(17.1)
		40대 이상	90(23.0)
	호주	20대	109(52.4)
		30대	54(26.0)
		40대 이상	45(21.6)
직업	한국	학생	146(37.2)
		직장인	197(50.3)
		무직	49(12.5)
	호주	학생	73(35.1)
		직장인	113(54.3)
		무직	22(10.6)

<표 3> 일반적 모발특성 비교

n(%)

측정항목	연령	한국 (n=392)				호주 (n=208)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자연 모발 색	검정	138(58.7)	27(40.3)	36(40.0)	201(51.3)	24(22.0)	10(18.5)	2(4.4)	36(17.3)
	갈색	97(41.3)	40(59.7)	51(56.7)	187(47.7)	53(48.6)	27(50.0)	16(35.6)	96(46.2)
	어두운 금발색	-	-	-	-	29(26.6)	8(14.8)	15(33.3)	52(25.0)
	밝은 금발색	-	-	-	-	3(2.8)	4(7.4)	4(8.9)	11(5.3)
	붉은색	-	-	-	-	-	3(5.6)	4(8.9)	7(3.4)
	반백	-	-	3(3.3)	3(0.8)	-	2(3.7)	4(8.9)	6(2.9)
	합계	235(100.0)	67(100.0)	90(100.0)	392(100.0)	109(100.0)	54(100.0)	45(100.0)	208(100.0)
자연 모발 색	직모	103(43.8)	29(43.3)	42(46.7)	174(44.4)	48(44.0)	22(40.7)	23(51.1)	93(44.7)
	굵은 곱슬	55(23.4)	20(29.9)	35(38.9)	110(28.1)	48(44.0)	20(37.0)	18(40.0)	86(41.3)
	가는 곱슬	77(32.8)	18(26.9)	13(14.4)	108(27.6)	13(11.9)	12(22.2)	4(8.9)	29(13.9)
	합계	235(100.0)	67(100.0)	90(100.0)	392(100.0)	109(100.0)	54(100.0)	45(100.0)	208(100.0)
모발 지성 도	건성	49(20.9)	31(46.3)	34(37.8)	114(29.1)	36(33.0)	30(55.6)	14(31.1)	80(38.5)
	지성	63(26.8)	11(16.4)	11(12.2)	85(21.7)	18(16.5)	7(13.0)	10(22.2)	35(16.8)
	중성 보통	123(52.3)	25(37.3)	45(50.0)	193(49.2)	55(50.5)	17(31.5)	21(46.7)	93(44.7)
	합계	235(100.0)	67(100.0)	90(100.0)	392(100.0)	109(100.0)	54(100.0)	45(100.0)	208(100.0)

슬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호주는 굵은 곱슬이 가는 곱슬보다 더 많이 나왔다.

모발지성도는 한국은 중성이 49.2%로 가장 많았고 건성 29.1%, 지성 21.7% 순이었으며 이는 양숙희(2001) 조사결과(중성 50.4%, 건성 28.9%, 지성 20.7%)와 최귀자(2001) 조사결과(중성 49.8%, 건성 38.1%, 지성 12.1%)와 김은숙·남철현(1999)의 조사결과(중성 46.4%, 건성 43.4%, 지성 10.2%)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호주는 중성이 44.7%로 가장 많았고 건성이 38.5%, 지성 16.8%로 나타나 양국 모두 비슷한 순으로 나타났다.

2. 염색행동 비교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과 호주여성 모두 70~80%정도로 염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보다는 호주여성이 더 염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0대, 20대, 30대 순으로, 호주는 20대, 40대, 30대 순으로 염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 40대 여성은 흰머리 염색을 많이 하는 요인에서 연유되었다고 보여진다.

염색모의 색상은 한국의 경우 갈색과 검정이 많고, 호주의 경우 밝은 금발, 갈색 순으로 염색하고 있어 한국은 갈색과 검정이 주로 염색의 기본색으로 선택되어지는데

반해 호주는 한국 보다 다양한 염색의 기본색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염색모의 기본색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20대는 갈색과 검정의 선택 비율이 비슷하였고, 갈색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 여성의 염색모의 색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갈색과 밝은 금발이 가장 많았고 30대는 갈색, 40대 이후에는 밝은 금발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모발을 직접 염색하는가에 대해 국가별로 한국은 33.6%, 호주는 15.8%가 그렇다고 나타나 한국 여성은 호주 여성에 비해 직접 자신의 머리를 염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호주 모두 40대 이후 여성이 자신이 직접 염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염색모의 유지기간에서는 국가별로 한국 여성은 염색모의 유지기간을 약 몇 달 정도로 응답한 수가 많은 반면 호주의 경우 약 몇 달 정도 47.5%, 약 2 주 27.1%, 약 몇 년 정도 20.9% 순으로 좀 더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염색하는 이유 중 예쁘게 보이려는 항목에서는 한국과 호주여성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한국여성 20대, 30대는 예쁘게 보이려고와 기분전환이 높게 나타났고, 40대 이상은 흰머리 커버를 위해 염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는 20대는 기분전환이, 30대는 예쁘게 보이려고, 40대는 흰머리 커버를 위해 염색하는 것으로 나

<표 4> 염색행동 비교

n(%)

측정항목	연령	한국 392(100)				호주 208(100)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현재	그렇다	146(62.1)	51(76.1)	71(78.9)	268(68.4)	99(90.8)	41(75.9)	37(82.2)	177(85.1)
	아니다	89(37.9)	16(23.9)	19(21.1)	124(31.6)	10(9.2)	13(24.1)	8(17.8)	31(14.9)
유무	합계	235(100.0)	67(100.0)	90(100.0)	392(100.0)	109(100.0)	54(100.0)	45(100.0)	208(100.0)

측정항목	연령	한국 268(100)				호주 177(100)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염색모색상	검정	52(35.6)	12(23.5)	10(14.1)	74(27.6)	5(5.1)	2(4.9)	-	7(4.0)
	갈색	67(45.9)	33(64.7)	53(74.6)	153(57.1)	35(35.4)	19(46.3)	7(18.9)	61(34.5)
	어두운 금발	5(3.4)	-	2(2.8)	7(2.6)	8(8.1)	7(17.1)	8(21.6)	23(13.0)
	밝은 금발	21(14.4)	4(7.8)	4(5.6)	29(10.8)	39(39.4)	10(24.4)	16(43.2)	65(36.7)
	붉은색	1(0.7)	2(3.9)	2(2.8)	5(1.9)	12(12.1)	3(7.3)	6(16.2)	21(11.9)
	합계	146(100.0)	51(100.0)	71(100.0)	268(100.0)	99(100.0)	41(100.0)	37(100.0)	177(100.0)
직접	그렇다	45(30.8)	10(19.6)	35(49.3)	90(33.6)	12(12.1)	7(17.1)	9(24.3)	28(15.8)
	아니다	101(69.2)	41(80.4)	36(50.7)	178(66.4)	87(87.9)	34(82.9)	28(75.7)	149(84.2)
유무	합계	146(100.0)	51(100.0)	71(100.0)	268(100.0)	99(100.0)	41(100.0)	37(100.0)	177(100.0)
염색모유지기간	약 2 주	17(11.6)	6(11.8)	9(12.7)	32(11.9)	34(34.3)	5(12.2)	9(24.3)	48(27.1)
	약 몇 달 정도	101(69.2)	36(70.6)	44(62.0)	181(67.5)	47(47.5)	24(58.5)	13(35.1)	84(47.5)
	약 몇 년 정도	26(17.8)	5(9.8)	7(9.9)	38(14.2)	17(17.2)	10(24.4)	10(27.0)	37(20.9)
	셀 수 없다	2(1.4)	4(7.8)	11(15.5)	17(6.3)	1(1.0)	2(4.9)	5(13.5)	8(4.5)
	합계	146(100.0)	51(100.0)	71(100.0)	268(100.0)	99(100.0)	41(100.0)	37(100.0)	177(100.0)

측정항목	연령	한국 268(100)			호주 177(100)		
		20대	30대	4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이상
염색하는 이유	흰머리 커버	4(2.3)	5(8.6)	44(50.5)	1(0.7)	16(26.6)	24(37.5)
	시선 끌기	2(1.1)	1(1.7)	1(1.1)	4(3.0)	1(1.6)	-
	유행 따라	2(1.1)	10(17.2)	8(9.1)	16(12.3)	9(15.0)	8(12.5)
	예쁘게 보이려고	75(43.8)	19(32.7)	24(27.5)	28(21.5)	19(31.6)	14(21.8)
	피부색과 조화	19(11.1)	10(17.2)	5(5.7)	18(13.8)	6(10.0)	10(15.6)
	기분전환	65(38.0)	12(20.6)	2(2.2)	54(41.5)	8(13.3)	8(12.5)
	기타	4(2.3)	1(1.7)	3(3.4)	9(6.9)	1(1.6)	-

측정항목	연령	한국124(100)			호주 31(100)		
		20대	30대	4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이상
염색을 하지 않는 이유	본래 머리색 선호	30(28.0)	5(23.8)	5(21.7)	4(40.0)	7(38.8)	6(50.0)
	흥미 없음	16(14.9)	2(9.5)	4(17.3)	2(20.0)	4(22.2)	1(8.3)
	염색약의 모발손상	44(41.1)	6(28.5)	7(30.4)	3(30.0)	3(16.6)	3(25.0)
	경제적 이유	7(6.5)	3(14.2)	1(4.3)	-	2(11.1)	1(8.3)
	시간낭비	3(2.8)	3(14.2)	2(8.6)	-	1(5.5)	1(8.3)
	알레르기체질	-	-	1(4.3)	-	-	-
	기타	7(6.5)	2(9.5)	3(13.0)	1(10.0)	1(5.5)	-

타났다. 염색하지 않는 이유는 양국 모두 본래 머리색을 선호하거나 모발 손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펴머넌트 웨이브에 관한 비교

펴머넌트 웨이브(이하 펴)에 관한 한국과 호주의 펴 유

무에 관한 것을 <표 5>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20대는 51.5%, 30대는 77.6%, 40대 이후에서는 85.6%가 펴를 하고 있어서 한국의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펴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호주에서는 10% 미만 여성이 펴를 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웨이브 펴이 촌스럽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주로 하며 또한 유행에 맞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생각된

<표 5> 펴에 관한 비교

n(%)

측정항목	연령	한국 392(100)				호주 208(100)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펌	그렇다	121(51.5)	52(77.6)	77(85.6)	250(63.8)	7(6.4)	4(7.4)	6(13.3)	17(8.2)
유	아니다	114(48.5)	15(22.4)	13(14.4)	142(36.2)	102(93.6)	50(92.6)	39(86.7)	191(91.8)
무	합계	235(100.0)	67(100.0)	90(100.0)	392(100.0)	109(100.0)	54(100.0)	45(100.0)	208(100.0)

측정항목	연령	한국 250(100)				호주 17(100)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펌 종류	아주 굵고 자연스런 웨이브 펴	29(24.0)	24(46.2)	27(35.1)	80(32.0)	-	-	2(33.3)	2(11.8)
	굵은 웨이브 펴	34(28.1)	9(17.3)	16(20.8)	59(23.6)	2(28.6)	1(25.0)	2(33.3)	5(29.4)
	중간 웨이브 펴	22(18.2)	7(13.5)	20(26.0)	49(19.6)	-	-	1(16.7)	1(5.9)
	작은 웨이브 펴	4(3.3)	2(3.8)	4(5.2)	10(4.0)	1(14.3)	-	-	1(5.9)
	스트레이트 펴	32(26.4)	10(19.2)	10(13.0)	52(20.8)	4(57.1)	3(75.0)	1(16.7)	8(47.1)
합계	121(100.0)	52(100.0)	77(100.0)	250(100.0)	7(100.0)	4(100.0)	6(100.0)	17(100.0)	
펌 이유	볼륨이나 컬을 주기위해	29(24.0)	19(36.5)	39(50.6)	87(34.8)	1(14.3)	1(25.0)	2(33.3)	4(23.5)
	외모의 변화를 주기위해	58(47.9)	23(44.2)	25(32.5)	106(42.4)	-	1(25.0)	3(50.0)	4(23.5)
	유행이기 때문에	2(1.7)	4(7.7)	1(1.3)	7(2.8)	1(14.3)	-	-	1(5.9)
하는 이유	또래집단에서 유행	-	-	2(2.6)	2(0.8)	-	-	-	-
	기분전환으로	17(14.0)	2(3.8)	2(2.6)	21(8.4)	2(28.6)	-	-	2(11.8)
	직모로 만들기 위해	14(11.6)	2(3.8)	7(9.1)	23(9.2)	3(42.9)	2(50.0)	1(16.7)	6(35.3)
이유	기타	1(0.8)	2(3.8)	1(1.3)	4(1.6)	-	-	-	-
합계	121(100.0)	52(100.0)	77(100.0)	250(100.0)	7(100.0)	4(100.0)	6(100.0)	17(100.0)	

측정항목	연령	한국 142(100)				호주 191(100)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펌을 하	본래의 머리형에 만족	35(30.7)	6(40.0)	3(23.1)	44(31.0)	35(34.3)	23(46.0)	20(51.3)	78(40.8)
	펌약이 머리카락을 손상	32(28.1)	1(6.7)	5(38.5)	38(26.8)	20(19.6)	3(6.0)	5(12.8)	28(14.7)
않는 이유	나의 얼굴과 어울리지 않아서	24(21.1)	5(33.3)	2(15.4)	31(21.8)	17(16.7)	4(8.0)	1(2.6)	22(11.5)
	유행에 맞지 않아서	2(1.8)	-	-	2(1.4)	20(19.6)	14(8.0)	11(28.2)	45(23.6)
이유	기타	21(18.4)	3(20.0)	3(23.1)	27(19.0)	10(9.8)	6(12.0)	2(5.1)	18(9.4)
합계	114(100.0)	15(100.0)	13(100.0)	142(100.0)	102(100.0)	50(100.0)	39(100.0)	191(100.0)	

다. 호주의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원래 모발이 아주 굵고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있는 곱슬머리가 많아 굳이 펴를 하지 않더라도 펴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또한 모발의 특성이 직모라도 대체로 모발의 두께가 가늘어서 간단한 손질로 헤어제품을 사용하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머리카락에 손상을 주어가며 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

헤어 샵에서 주로 구분하고 있는 펴의 다섯 종류 중 한국은 주로 자연스럽고 굵은 웨이브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호주는 소수의 펴를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스트레이트 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펌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 볼륨이나 컬을 주기 위해서 펴를 하고 있었고, 호주의 경우는 직모로 만들기 위해 펴를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나 양국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펴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양국 모두 본래의 머리형에 만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헤어 샵(hair shop) 이용 비교

<표 6>을 살펴보면 한국과 호주여성 모두 헤어 샵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용 빈도는 한국의 20·30대는 필요할 때만, 40대는 한 달에 한번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호주는 빈도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한국의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헤어 샵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여성과 비교할 때, 호주 여성이 좀 더 정기적으로 헤어 샵을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표 6> 헤어 샵(hair shop) 이용 비교

n(%)

측정항목	연령	한국 392(100)				호주 208(100)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헤어 샵	그렇다	227(96.6)	66(98.5)	89(98.9)	382(97.4)	97(89.0)	51(94.4)	42(93.3)	190(91.3)
이용	아니다	8(3.4)	1(1.5)	1(1.1)	10(2.6)	12(11.0)	3(5.6)	3(6.7)	18(8.7)
유무	합계	235(100.0)	67(100.0)	90(100.0)	392(100.0)	109(100.0)	54(100.0)	45(100.0)	208(100.0)

측정항목	연령	한국 382(100)				호주 190(100)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헤어 샵 이용 빈도	매주	3(1.3)	2(3.0)	1(1.1)	6(1.6)	17(17.5)	2(3.9)	-	19(10.0)
	한 달에 한번	34(15.0)	12(18.2)	42(47.2)	88(23.0)	21(21.6)	14(27.5)	16(38.1)	51(26.8)
	두 달에 한번	31(13.7)	11(16.7)	22(24.7)	64(16.8)	9(9.3)	9(17.6)	9(21.4)	27(14.2)
	석 달에 한번	40(17.6)	15(22.7)	5(5.6)	60(15.7)	26(26.8)	14(27.5)	8(19.0)	48(25.3)
	필요할 때만	119(52.4)	26(39.4)	19(21.3)	164(42.9)	24(24.7)	12(23.5)	9(21.4)	45(23.7)
	합계	227(100.0)	66(100.0)	89(100.0)	382(100.0)	97(100.0)	51(100.0)	42(100.0)	190(100.0)

측정항목	연령	한국 382(100)				호주 190(100)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가장 많이 받는 시술	헤어 컷	128(32.7)	35(32.4)	58(45.3)	221(35.2)	80(38.6)	46(41.0)	39(42.8)	165(40.2)
	헤어 드라이	29(7.4)	6(5.5)	6(4.6)	41(6.5)	36(17.3)	21(18.7)	11(12.0)	68(16.5)
	펌	97(24.8)	27(25.0)	36(28.1)	160(25.5)	2(0.9)	-	5(5.4)	7(1.7)
	염색	78(19.9)	26(24.0)	17(13.2)	121(19.2)	71(34.2)	31(27.6)	27(29.6)	129(31.4)
	모발관리	35(8.9)	9(8.3)	10(7.8)	54(8.6)	16(7.7)	10(8.9)	6(6.5)	32(7.8)
	세팅	22(5.6)	5(4.6)	-	27(4.3)	-	-	1(1.0)	1(0.2)
	올림머리	1(0.2)	-	1(0.7)	2(0.3)	1(0.4)	1(0.8)	2(2.1)	4(0.9)
	기타	1(0.2)	-	-	1(0.1)	1(0.4)	3(2.6)	-	4(0.9)

국의 헤어 샵은 대부분 예약 없이 방문해도 헤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호주의 헤어 샵은 대부분 예약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고객이 헤어 샵을 방문 할 때 자신의 헤어 스케줄을 미리 헤어 디자이너와 상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써 헤어 샵에서는 구체적으로 헤어 디자이너별, 날짜별 시간 계획과 헤어 제품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헤어 샵 경영이나 고객만족에 도움이 된다.

헤어 샵에서 주로 많이 받는 시술을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은 헤어 컷과 펌, 염색 순으로 헤어 시술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여 김용숙·이지영(2002)의 한국 성인여성들의 미용실 이용 목적 조사결과인 컷, 펌, 염색, 코팅 순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호주의 여성은 헤어 컷을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염색을 그리고 헤어 드라이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헤어 제품에 관한 비교

헤어 제품의 사용 빈도를 알아보면, 한국 여성은 필요할 때 헤어 제품을 사용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호주의 여성은 하루에 한번 헤어 제품을 사용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7>에서는 헤어 제품을 사용하는 응답자의 헤어 제품 사용 이유를 알아본 결과, 한국의 20대는 영양을 주기 위해, 윤기를 더하기 위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순이었고, 30대는 헤어스타일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영양을 주기 위해, 윤기를 더하기 위해 순이었으며, 40대 이후는 헤어스타일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영양을 주기 위해 순으로 헤어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에는 스타일을 만들기 보다 머리카락 자체를 건강해 보이기 위한 제품을 사용하고 30대와 40대에는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 제품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20·30대는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헤어스타일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순으로 나타났고, 40대 이후는 헤어스타일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볼륨을 주기 위해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한국의 20대는 헤어컨디셔너, 헤어 왁스를, 30대에서는 헤어 젤, 헤어 컨디셔너, 헤어 왁스를 40대 이후에서는 헤어 젤과 헤어스프레이를

<표 7> 헤어 제품에 관한 비교

n(%)

측정항목	연령	한국 300(100)				호주 164(100)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헤어 제품 사용 빈도	필요할 때	94(56.3)	32(59.3)	44(55.7)	170(56.7)	19(22.4)	7(17.5)	12(30.8)	38(23.2)
	일주일에 2~3번	18(10.8)	4(7.4)	9(11.4)	31(10.3)	18(21.2)	9(22.5)	3(7.7)	30(18.3)
	하루에 한 번	53(31.7)	18(33.3)	26(32.9)	97(32.3)	45(52.9)	22(55.0)	24(61.5)	91(55.5)
	하루에 2~3번	2(1.2)	-	-	2(0.7)	3(3.5)	2(5.0)	-	5(3.0)
전체	167(100.0)	54(100.0)	79(100.0)	300(100.0)	85(100.0)	40(100.0)	39(100.0)	164(100.0)	

측정항목	연령	한국 300(100)			호주 164(100)		
		20대	30대	4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상
헤어 제품 사용 이유	헤어스타일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53(18.9)	20(24.6)	35(26.0)	38(25.0)	16(23.1)	24(27.9)
	볼륨을 주기 위해	29(10.3)	11(13.5)	21(15.6)	17(11.1)	8(11.5)	20(23.2)
	윤기를 더하기 위해	61(21.7)	17(20.9)	20(14.9)	26(17.1)	9(13.0)	13(15.1)
	명량을 주기 위해	81(28.9)	19(23.4)	27(20.1)	24(15.7)	14(20.0)	13(15.1)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56(20.0)	13(16.0)	29(21.6)	45(29.6)	21(30.4)	15(17.4)
	기타	-	1(1.2)	2(1.4)	2(1.3)	1(1.4)	1(1.1)
	헤어 스프레이	34(11.0)	17(16.6)	40(24.8)	42(24.0)	15(20.0)	28(36.3)
주로 사용하는 제품	헤어 무스	7(2.2)	5(4.9)	14(8.6)	18(10.2)	8(10.6)	11(14.2)
	헤어 왁스	72(23.3)	16(15.6)	22(13.6)	26(14.8)	16(21.3)	6(7.7)
	헤어 젤	39(12.6)	24(23.5)	41(25.4)	6(3.4)	6(8.0)	3(3.8)
	헤어 컨디셔너	97(31.3)	23(22.5)	24(14.9)	42(24.0)	19(25.3)	19(24.6)
	헤어 그로스	56(18.1)	15(14.7)	20(12.4)	40(22.8)	10(13.3)	9(11.6)
	기타	4(1.2)	2(1.9)	-	1(0.5)	1(1.3)	1(1.2)
	브랜드	48(16.9)	14(16.2)	19(16.6)	31(20.6)	14(20.5)	17(25.3)
구입시 중요한 요인	제품용기 디자인	3(1.0)	1(1.1)	3(2.6)	5(3.3)	3(4.4)	2(2.9)
	가격	47(16.5)	14(16.2)	18(15.7)	33(22.0)	14(20.5)	18(26.8)
	제품의 향	55(19.3)	19(22.0)	15(13.1)	20(13.3)	4(5.8)	4(5.9)
	제품의 효능, 품질	130(45.7)	37(43.0)	57(50.0)	55(36.6)	29(42.6)	24(35.8)
	기타	1(0.3)	1(1.1)	2(1.7)	6(4.0)	4(5.8)	2(2.9)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호주의 20대는 헤어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헤어 그로스를, 30대에서는 헤어 컨디셔너와 헤어 왁스, 헤어스프레이를 많이 쓰고, 40대 이후에서는 헤어스프레이와 헤어 컨디셔너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 제품을 구입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는 한국의 20대와 30대는 제품의 효능 및 품질, 제품의 향, 브랜드 순이었고, 40대 이후에서는 제품의 효능 및 품질, 브랜드, 가격 순이었다. 호주의 20대와 30대, 40대 이후 모두는 제품의 효능 및 품질, 가격, 브랜드 순으로 한국 여성들보다 가격 요인에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6. 헤어 샵(hair shop) 서비스 만족도 비교

헤어 샵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호주 두 조사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하였으며, 각각

의 두 조사 집단 별로 연령에 따른 차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기법을 사용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한국과 호주의 헤어 샵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폼 만족도를 제외한 6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보다는 호주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호주의 경우, 가격은 비싸지만 예약문화 정착 및 질 높은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영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예약 없이 필요할 때 방문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편리성은 높은 반면 서비스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 샵 서비스 만족도의 연령별 차이<표 9>를 보면, 한국은 헤어드라이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0대가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주에서는 폼 만족도는 40대가, 직원태도 만족도는 30·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만족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8> 헤어 샵(hair shop) 서비스 만족도 비교 (국가별)

	국적	N	평균	표준편차	T - 값
염색 만족도	한국	320	3.58	.77	-8.70***
	호주	158	4.27	.91	
헤어 컷 만족도	한국	362	3.51	.79	-6.75***
	호주	181	4.03	.98	
펌 만족도	한국	321	3.37	.81	-0.30
	호주	21	3.43	1.33	
헤어드라이 만족도	한국	303	3.44	.82	-5.00***
	호주	133	3.91	1.06	
올림머리 만족도	한국	187	3.05	.82	-5.31***
	호주	47	3.83	1.15	
샴푸·두피 마사지 만족도	한국	296	3.59	.78	-4.99***
	호주	148	4.03	1.02	
직원태도 만족도	한국	339	3.71	.81	-6.79***
	호주	153	4.25	.85	

*** : P < 0.001

< 표 9 > 헤어 샵(hair shop) 서비스 만족도 비교 (연령별)

만족도 항목	한국					호주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평균	F 값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평균	F 값
염색 만족도	3.57 A	3.50 A	3.68 A	3.58	0.914	4.24 A	4.23 A	4.41 A	4.27	0.437
헤어 컷 만족도	3.49 A	3.48 A	3.58 A	3.51	0.406	4.02 A	3.92 A	4.21 A	4.03	0.937
펌 만족도	3.39 AB	3.18 A	3.46 B	3.37	2.227	3.60 B	2.20 A	4.17 B	3.43	4.160*
헤어 드라이 만족도	3.56 B	3.29 AB	3.16 A	3.44	6.263**	3.92 A	3.83 A	4.00 A	3.91	0.195
올림머리 만족도	3.05 A	3.14 A	2.97 A	3.05	0.380	4.00 A	3.20 A	4.00 A	3.83	1.994
샴푸 및 두피마사지 만족도	3.58 A	3.57 A	3.64 A	3.59	0.134	3.89 A	4.12 A	4.22 A	4.03	1.386
직원태도 만족도	3.68 A	3.76 A	3.64 A	3.71	0.273	4.09 A	4.48 B	4.40 AB	4.25	3.527*

* : P < 0.05 ** : P < 0.01

알파벳은 Duncan의 사후검증 A<B

IV. 결론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토털 패션시대에 개인적인 헤어 특질과 사회배경, 문화가 다른 한국과 호주 여성의 모발 관리행동을 비교·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모발색에서 한국은 검정과 갈색, 호주는 갈색과 어두운 금발이 많았고 자연 모발형에는 직모, 굵은

곱슬 순으로 한국과 호주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발지성도는 한국과 호주 여성의 응답이 비슷하였다.

2. 염색 유무의 경우 한국여성과 호주여성은 대부분이 염색을 하고 있었고, 염색모의 색은 한국은 갈색, 검정, 호주는 갈색, 밝은 금발 순으로 나타났다. 염색하는 이유는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이 가장 많았고, 염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 염색약의 모발손상, 본래의 머리색 선호, 호주는 본래 머리색 선호, 염색약의 모발손상 순으로

이로 한국여성이 많았고 한국여성은 외모에 변화를 주기위해, 볼륨이나 컬을 주기 위해, 펴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호주는 직모로 만들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펴름 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 본래 머리형에 만족, 펴름 솔루션의 모발손상, 자신의 얼굴형과 맞지 않아서였고, 호주는 본래 머리형에 만족, 유행에 맞지 않아서, 펴름 솔루션의 모발손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헤어 샵 아용에 있어서는 한국과 호주 여성 모두 헤어 샵을 많이 이용하였고 이용 빈도는 필요할 때만, 한 달에 한번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호주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가장 많이 받는 시술은 한국은 헤어컷, 펴름, 염색 순으로, 호주는 헤어컷, 염색, 헤어드라이 순으로 나타났다.
5. 헤어제품 사용 이유는 한국은 영양을 주기위해, 호주는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한국은 헤어컨디셔너와 헤어왁스, 호주는 헤어스프레이와 헤어그로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헤어제품 구입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한국의 경우 제품효능, 제품의 향, 브랜드 순이었고, 호주는 제품효능, 가격,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6. 헤어 샵 이용 만족도에서는 호주의 만족도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염색, 헤어컷, 헤어드라이, 샴푸·두피마사지, 직원태도 만족도에서는 양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신체조건 및 문화적 조건이 다른 한국과 호주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모발관리행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차이점을 규명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용교육현장에서 서로 다른 헤어문화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한국헤어관련정보만으로 미용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서양여성들의 모발에 관한 정보를 함께 비교 교육시킴으로서 해외 파견인력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동양과 서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헤어제품 개발 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모발관리행동, 모발색, 헤어 샵 서비스 만족도

참 고 문 헌

- 곽형심(1998). 여성의 모발미용에 대한 의식형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 김남일(1986). 한국 메이크업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 김용숙, 이지영(2002). 성인 여성들의 모발관리행동과 모발 화장품 만족도. 복식, 52(8), 99-107.
- 김은숙, 남철현(1999). 미용학원 수강생의 모발미용의식형태와 미용실 위생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보건복지연구, 3권.
- 김형욱(1999). 서비스 산업의 품질 경쟁력 분석.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나영순, 최은영, 백승화(2000). 미용에 관한 고객만족도의 분석. 기초과학연구지, 18(1).
- 노영희(1999). 미용전공과 비전공 여대생의 모발염양지식, 모발상태, 모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6).
- 윤형식 외 12명(2002). 머리염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동국의학, 9(1).
- 최귀자(2000). 미용실고객의 모발에 대한 인식도 조사. 보건복지연구, 4권.
- 최연희, 남철현(1999). 미용실 종사자들의 두발처치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요인 분석. 보건복지 연구, 3권.
- 하병조(1999). 화장품학. 서울: 수문사.
- 황선아, 황선진(2001). 미용실의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만족에 관한 연구, 복식, 51(8), 171-183.

(2005. 01. 25 접수; 2005. 04. 04 채택)